스페인 황금세기의 문학 검열

김경범
(마드리드 대학 박사과정 수료, 스페인문학)

> 빰쁠로나Pamplona의 프란시스코회 수도원의 설교자이자 대사제인 힐꼬르돈Gil Cordón은 나바라Navarra 왕국 왕립 심의회Real Consejo의 위촉에 의해 안또니오 데 에슬라바 Antonio de Eslava의 *Noches de Invierno*란 제목의 책 1부를 심의한 결과 그 안에 우리의 신성한 카톨릭 신앙에 반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전한 유희가 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이 책은 작가 역시 많은 독서로 인해 상당한 지적 소양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출판되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이 사실임을 본인의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
> — 1608년 11월 27일 힐 꼬르돈 신부.

1608년 나바라 지방의 시구엔사Sigüenza에 사는 안또니오 데 에슬라바는 *Noches de Invierno*의 출판허가를 그 지방 왕립 심의회에 신청했고 심의회는 빰쁠로나 시의 권위있는 고위 사제 힐 꼬르돈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심의회 위원들 (Juan de Cardona, Juan de San Vicente, Liedena, 외 4인) 자체 내에서도 심사를 진행한다. 그후 위의 소견서가 왕립심의회에 보내진 다음날(11월 28일), 심의회 서기 후안 데 우레따 Juan de Hureta는 국왕 펠리뻬 3세, 나바라 왕국의 부왕이자 섭정인 Virrey y Regente 및 위 심의회의 이름으로 출판을 허가하고 작가에게 10년간 판권을 보장한다. 출판허가를 받은 작가는 까를로스 데 리바이덴 Carlos de Libayden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찾아갔고 책은 다음 해인

1609년 빰쁠로나에서 초판이 나온다. 초판에는 이미 출판 허가를 받은 뒤인 1609년 6월 26일에 후안 데 멘디Licenciado Juan de Mendi가 서명한 다음과 같은 간략한 출판 소견서가 덧붙어져 있다: "나는 왕립 심의회의 의뢰로 이 책을 읽었는데 특별히 언급할 만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책은 같은 해 바르셀로나와 사라고사에서 다시 출판된 뒤 브뤼셀(당시 스페인 영토)에서 1610, 1616, 1626, 1657년, 누렌버그에서 1666, 1669, 1683년, 마드리드에서 1662년에 다시 인쇄된다. 독일어판은 비엔나에서 1649년에, 책의 일부만 번역된 불어판과 영어판은 각각 1777년(파리), 1832년(런던)에 나왔고, 영어판은 1880년 재간되었다. 20세기 들어서는 마드리드에서만 1926, 1942, 1957년에 나왔고, 위에 번역된 텍스트는 1986년 훌리아 바렐라 비갈Julia Barella Vigal이 펴낸 연구판Pamplona: Príncipe de Viana이다. 이렇듯 *Noches de Invierno*는 이베리아 반도내에서 네 번 출판되었는데, 초판이 나온 1609년과 1610년을 제외하면 1662년 마드리드판이 유일하다. 그러나 미드리드d판은 빠스꾸알 가얀고스Pascual Gayangos가 마드리드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1609년 바르셀로나 판의 맨 앞장에 "나는 1662년 마드리드판이 어디선가 인용된 것을 본적이 있다" 라고 손으로 써넣은 것에 근거할 뿐 실제로 마드리드에서 그 해 인쇄되었는지를 증명할 다른 자료가 없다. 즉 1662년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판이거나 실제 있었다면 해적판일 것이다.

브뤼셀과 뉘렌부르크에서 17세기 내내 나온 책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초판본이 나온 다음해에 절판되었다면 그것은 무슨 연유일까? 해답은 1632년 후안 데 삐네다Juan de Pineda 신부가 서명하고 안또니오 싸빠따Antonio Zapata 추기경이 공고한 금서목록 *Novus Index Librorum Prohibitorum*에 있다. 바렐라 비갈은 이 책이 처음 금서목록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 1667년 Index라고 연구판(p. 14)에서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싸빠따 Index로 알려진 이 목록의 Expurgatorum Index(완전한 금서가 아니라 지적된 문장이나 한 부분을 수정 혹은 삭제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 출판할 수 있는 책 목록)에 보면,

*Noches de Invierno*는 다섯 가지의 지적사항을 삭제, 수정한 뒤 다시 출판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중 첫 세 가지는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템페스트』를 쓸 때 참고한 다르다노Dárdano왕의 이야기로 삭제부분은 마법이 타인이나 '신들'dioses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 부분, 에덴동산을 지키던 천사가 아담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면서부터 마법이 시작되었다고 한 부분, 그리고 어떤 사제를 강신술을 하는 '위대한 마법사'로 묘사한 부분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롤단Roldán의 탄생에 대한 중세전설에서 귀족인 밀론Milón과 칼 대제의 여동생 베르따Berta의 은밀한 사랑을 다루는 부분중 밀론이 과부복장으로 베르따의 궁에 들어가 벌이는 애정행각 장면과 이 전설 속에 많이 언급되는 요정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를 삭제하고 출판할 수 있다면 검열관은 작품에 대해 매우 관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위에서 지적된 것 말고도 다르다노 왕의 이야기는 마법의 종류와 그 미덕을 찬양한 부분이 수없이 나오고 다른 아야기에서도 남녀간의 부정한 사랑이 번번하게 언급된다. 또한 상상속의 나라에서 행하는 이상한 관습과 신비로운 장소에 대한 묘사, 사물에 대한 백과사전식 설명 등에는 카톨릭 신앙에 위배되는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책이 출판허가를 받기에는 책의 헌정자인 꼬르떼스 후작Marqués de Cortes과 푸엔떼스 백작Conde de Fuentes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 바렐라 비갈은 추측하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바로 두 귀족이 영향력을 상실한 뒤에 마드리드에서 나온 싸빠따 Index에 처음 이 책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Noches de Invierno*는 그 뒤 20세기까지 한번도 공식 출판되지 못한다. 1612년의 금서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바렐라 비갈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이 금서로 되는 데 더 직접적인 이유로 검열의 성격자체가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변했다는 사실과 이것이 금서목록에 반영되기까지 아직 좀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서론을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에슬라바의 책이 문학적으로 뛰

어나서가 아니라 이 책이 스페인 황금세기에서 문학과 검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데 한 단초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이 책에서 뿐만 아니라 금서로 지정된 거의 모든 책에서 찾아 볼수 있고 특히 검열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 17세기이후 싸빠따 Index에 오른 책들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지금은 에슬라바의 예를 통해 스페인 황금세기에 문학검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다.

1. 검열제도의 형성배경

스페인 황금시기의 문학검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열의 주체인 종교재판소Inquisición의 성립과정과 성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사회에서 과학, 문화, 종교서적에 대해 체계적인 검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열이 존재했음을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예로 오비디우스 추방형이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호라티우스의 글들은 정치권력이 '건강한'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문학 및 철학서에 대해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사회에서 검열은 기독교사회가 형성되고 수세기가 지난 뒤,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단일성에 맞서는 이단의 움직임이 12세기에 이태리북부와 프랑스남부를 중심으로 세력화되자, 1233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주교들 앞으로 보낸 편지를 필두로 이단 사냥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된다. 종교재판의 주체는 교황청이고 대상은 이단이라는 종교적 문제에 국한되었다. 다만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이를 남부지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확대수단으로 이용했다.(Turberville, cap. 1) 즉 교황청에 의해 공인된 성경과 주석에 기초한 카톨릭의 단일성을 수호하기 위해 외경(外經)이나 자의적인 성경 주석서 및 기도서등은 광장에서 불태워지거나 수도원으로 수거되어 극히 제한적인 사제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세 스페인은 근본적으로 카톨릭, 이슬람, 유태교가 서로 상대

방 종교를 인정하고 있는 사회였고 검열은 카톨릭 내부의 단일성에 반하는 문건의 유포를 막기 위한 것이지 다른 종교의 영향력을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를 분할하고 있었던 두 정치세력 즉 아라곤Aragón왕국과 까스띨야Castilla왕국 중에서 종교재판을 시행한 곳은 아라곤뿐이고 까스띨야에서는 1478년 이사벨Isabel여왕이 만들기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아라곤에서 만들게 된 이유는 프랑스 남부의 이단세력이 쫓겨 피레네로 숨어들거나 왕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내부의 이단을 척결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 활동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재정이 취약하여 르네상스 이후처럼 강력하지 못했다. 중세 스페인 왕조의 당면과제는 국토수복Reconquista이었지만 점령된 지역의 모로인들에게는 카톨릭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재산과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다. 유태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반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1391년 세비야에서의 유태인 학살) 그들은 경제력과 결혼을 매개로 왕실 및 귀족과 견고한 유대를 맺고 있었다. 모로인과 유태인은 아직 중세 스페인 사회에 위험이 되지 못했다. 한편으로 그 당시의 모든 책은 필사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라틴어나 로만세romance로 불린 중세 스페인어로 쓰인 필사본의 독자층은 일부 식자층이거나 대부분은 사제였다. 그만큼 이 당시 필사본은 대중적 영향력이 약했고 이단의 문제는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들의 칙서를 통해 주위가 환기되었을 뿐 문학 작품은 검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필사본형태의 문학작품이 소수의 독자에게 미치는 반향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남아있는 중세 작품들, 특히 개종한 유태인인 뻬드로 알폰소Pedro Alfonso의 *Disciplina Clericalis*, 후안 마누엘Juan Manuel의 *El conde Lucanor*, 후안 루이스Juan Ruiz의 *Libro de Buen Amor*, 작가 미상의 *Libro del Caballero Çifar*에서, 또 시선집인 *Cancionero de Baena*에서 아랍의 영향은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 중 *El conde Lucanor*만 황금세기에 빛을 보았을 뿐 (Sevilla, 1575;

Madrid, 1642), 나머지 작품들은 출판되지 못한 채 필사본으로 읽혀졌다. 이렇듯 중세 시대에 있어 검열의 대상은 문학작품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주석서 및 기도서들 이었고 금서목록과 같은 구체적인 검열결과가 나온 적도 없다. 문학과 검열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던 전체주의의 시대와 문학작품의 대량 복제가 가능한 '출판의 시대'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시대는 갑자기 찾아온다.

발단은 까스띠야의 엔리께 4세Enrique IV 이후의 왕위 계승을 동생인 이사벨로 하느냐 아니면 딸인 후아나Juana로 하느냐를 두고 귀족간의 내전이 벌어지자 이사벨파는 원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1469년에 그녀와 아라곤왕 후안 1세의 아들이자 시칠리아의 왕이었던 페르난도Fernando와의 비밀 정략결혼을 성사시키면서 시작된다. 그 뒤 이사벨은 1474년 까스띨야의 여왕이 되고 각기 내전을 통해 실권을 장악한 1476년, 두 왕국은 연방제적 의미로 통합된다. (Kamen, pp. 17-19) 이 통합국가는 먼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베리아 반도의 통일을 국시로 삼아 1478년 교황 식스투스Sixtus 4세에게 종교재판소 설립을 요청하는 한편 14세기 이후 실제적으로 그라나다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모로 왕국과의 전쟁(1483-1492)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 당시는 아직 프로테스탄티즘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때 종교재판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주적(主敵)인 이단을 누구로 설정했느냐는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위에서 언급했던 1391년 세비야의 유태인 학살이후 '유다의 후손'에 대한 카톨릭 교도의 반감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 유태인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겉으로는 카톨릭을 믿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유태교를 버리지 않았고 생활형태도 바뀌지 않아 카톨릭과 유태교가 합쳐진 양태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정치세력과 고위 성직자는 유태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전례와 믿음의 변질을 우선적인 척결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신앙의 단일성과 순수성을 해치는 위험

스런 존재로 간주했으나 여기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위험을 과장했다는 설도 설득력이 있다. 즉 의심스럽고 부유한 유태인들을 종교재판에 회부함으로 그들의 부를 압류하여 교회와 재판소의 재정을 확충하고 그들과 결탁한 귀족 세력을 옭아매어 정치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첫번째 종교재판은 1481년 세비야에서 열렸고 이후 이베리아반도 전체로 확산된다. 그리고 그라나다가 함락되는 1492년 유태인들은 개종이냐 아니면 추방이냐를 강요당하는데 이때 떠난 유태인의 수는 7만에서 80만까지 언급되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다. 반면 그라나다의 이슬람교도에게는 뒤에서 말할 씨스네로스Cisneros 대주교가 부임하기 전까지 카톨릭이 '권장'되었을 뿐 강요되지는 않다가 1525년 까를로스 1세 (신성로마제국에서는 Carlos 5세)에 의해 개종하지 않은 모로인만 추방된다. 모로인 추방령은 1609년 펠리뻬 3세에 의해 다시 한번 공포된다.

2. 금서목록과 검열기준

그러나 15세기 말까지도 문학은 검열 대상이 아니었고 칼빈, 쯔빙글리, 에라스무스의 책들이 읽히는 것을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스페인에 인쇄소가 생긴 때는 1470년대이지만 본격적인 양산체제는 1490년대에 갖춰진다.(Díez Borque, pp. 62-77) 이와 함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에서 인쇄된 책들이 리용을 거쳐 수입상이 있었던 세비야, 바르셀로나, 사라고사, 메디나 델 깜뽀Medina del Campo를 거쳐 스페인에 유입되면서 문학 검열의 필요성이 성직자들 사이에 제기된다. 그 한 예가 1494년 발렌시아에서 출판된 종교 재판관을 위한 지침서인 *Repertorium Inquisitorum Pravitatis Hereticae*에 금서로 지정해야 할 책의 성격이 짧게 언급된다.(Sierra Corella, Apéndice, I, II)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건은 1500년, 당시 그라나다 대주교인 프란씨스꼬 히메네쓰 데 씨스네로스Francisco Ximénez de Cisneros(마드리드 꼼쁠루뗀세대

학의 설립자. 나중에 추기경이 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의 명으로 이루어진 '퇴폐적이고 미신과 이단으로 가득한 책들'에 대한 화형식이다. (Sierra Corella, pp. 85-86) 이들 책들의 대부분은 개종한 유태인이나 모로인의 수중에 있었고 유사한 화형식은 다른 지역에서도 거행되었다. 이렇게 제기된 검열의 필요성은 1502년 7월 8일, 이사벨과 페르난도가 서명하여 공포한 왕령을 통해 법제화된다. 즉 스페인에서 공식적인 문학 검열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왕령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신의 은혜로 까스띨야, 아라곤, 레온 등등의 왕과 여왕이 된 페르난도와 이사벨은 왕국의 모든 관리와 재판관, 그리고 책의 출판, 인쇄, 수입,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명하노니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책이나 헛되고 미신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사악한 책이 읽히는 것을 금하기 위해 출판, 제본, 수입, 판매업자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야돌리드Valladolid와 씨우닫레알Ciudad Real은 지역 재판장이, 똘레도, 세비야, 그라나다는 대주교가, 부르고스Burgos는 주교가, 그리고 살라망까Salamanca와 싸모라Zamora는 살라망까 대주교나 그들이 임명한 검열관이 이 일을 수행한다. 국외에서 인쇄틀molde을 반입하는 것도 엄히 금하며 만일 허가없이 책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수입, 인쇄된 책과 인쇄틀을 압수하고 이미 팔린 책에 대해서는 수입상, 출판인이 배상할 뿐만 아니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벌금은 신고한 자에게 1/3, 담당판사가 1/3, 그리고 검열 및 허가를 담당할 왕립기관이 1/3씩 나눈다. 관리들은 위 사항을 서적 관계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지로 인해 수입상, 출판인이 법을 어길 경우 책임이 있는 쪽은 일만 마라베디Maravedí를 왕립기관에 내야 한다.(Sierra Corella, pp. 79-84)

위의 왕령은 책을 수입, 출판하기 위해서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검열은 국가권력과 교회가 결합된 차원에서 이루워진다. (국가와 카톨릭의 통합은 18세기 말까지 유지되다가 종교재판소가 없어진 후 교황청과 스페인 정부는 따로 금서 목록을 공표하게 된다.) 즉 왕립 심의회가 문학 검열업무를 담당하되 그 감독권을 지역의 고위성직자가 갖는 형태이다. 지역 책임자는 심의회 내에 검열위원을 위촉하고 밖으로 유력한 사제의 견해를 물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검열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만큼 자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

로는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될만큼 명확한 대상이 존재했다. 왕령에서 언급된 '헛되고 미신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사악한 책'이란 먼저 프로테스탄티즘, 이슬람 및 유태교와 관련된 모든 책을 지칭하고 그 다음에 중세에서처럼 성경을 비공식적으로 해석한 이단과 점성술, 마법에 대해 쓴 책들을 말한다. 에라스무스의 책들은 선별적으로 금지됐는데 트리엔트 종교회의(1544-1564) 이후 반종교개혁Contrarreforma 시대에는 라틴어로 쓰여진 책을 제외한 모든 책들이 금서가 된다. 처벌규정은 언듯 보기에 그리 가혹하지 않아 보인다. 왕령에서는 단순히 책과 인쇄틀의 압수 및 이미 팔린 책값을 벌금으로 낼 것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단 걸리면 사태는 간단치 않다. 예를 들어 루터의 책을 허가 없이 인쇄 판매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왕립 심의회는 위에서 말한 재산형을 부과하는 데서 끝나지만 종교재판 최고 심의회Consejo Supremo de la Santa Inquisición는 그 사람을 이단이라는 혐의를 걸어 종교재판소에 기소할 수도 있다. 당시 종교재판소는 기소한 검열관이 판결과정에 참여하는 파행적 양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기소권과 판결권이 명확히 분리된 것은 17세기이고 이들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인한 폐단은 17세기말 왕위계승 전쟁이후 첨예하게 드러나 그 뒤 종교재판소 폐지의 한 요인이 된다.) 자백을 얻어내는 유일한 수단은 고문이다. 일단 기소되면 공공장소에서의 태형, 재산몰수를 당하기 십상이고 죄를 자백하지 않거나 축소, 은폐하면 고문을 거쳐 화형대로 간다. 즉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종교재판소는 판결만 할 뿐 처벌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판결이 나면 '죄수'는 일반 법정으로 옮겨져 판결내용을 추인 받고 형 집행은 일반 법정이 한다. 판결번복은 17세기 말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번복한 판사는 종교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악명은 대부분 이 가혹한 고문과 불합리한 판결과정에 기인한다. 만약 이 사람이 고문에 못이겨 신교도이거나 이단임을 인정하면 그 사람만 화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도 검열관에게 조사를 당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이지만 언제 검열관

이 들이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다른 방법은 힘있는 귀족과 고위 사제를 후견인으로 두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일단 기소된 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종교재판과 관련되어 금지된 일이나 의심을 살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리가 사회전체에 팽배해 있었다. 이렇듯 1502년 왕령은 왕립 심의회와 종교재판소를 두 축으로 강력한 서적 통제가 시행되는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책의 출판에 관한 더 구체적인 법령은 1558년 9월 7일 바야돌리드에서 공표된다. 18세기 초까지 유지된 이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적의 출판 허가는 각 지방의 왕립심의회가 관장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제가 서명한 인증서를 먼저 얻어야 한다.

2)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책은 필사본이나 인쇄본에 상관없이 심의회의 서기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3) 허가를 받은 책은 표지, 추천서, 가격인증서, 판권인정서 없이 인쇄되어야하며 허가 전에 제출된 책과 다른 점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심의회에 다시 한 부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회는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명시하여 확인서를 발부한다.

4) 심의회는 서기가 확인한 각 단절(單節, pliego)의 가격 인증서를 발부하며 팔리게 될 책에는 출판허가서, 가격 및 판권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한다.(1627년부터는 작가명, 출판인, 출판장소 및 년도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위에서 보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사제의 허가서와 심의회의 허가서 모두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방별로 세부규칙이 다르지만 까스띨야의 경우 다른 지방에서 허가 받은 책이 유입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즉 아라곤에서 허가받은 책이라도 마드리드에서 팔리려면 다시 까스띨야 지방 왕립심의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규정은 그리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한다. 법령은 신교 및 이단 서적 수입을 금지하고 이후 서적의 사전 출판 심의를 언급할 뿐이며, 이렇게 출판 허가를 이중으로 해 놓았지만 이단 서적의 검열을 위해서는 이 법령들로 충분하지 못했다.

출판허가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이미 나온 책에 대한 전체적인 금서 목록을 만드는 일인데 이것은 1549년 세비야 대주교이자 총검열관 Inquisidor General인 페르난도 데 발데스Fernando de Valdés의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유럽에서는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책들이 인쇄술의 도움으로 전 유럽에 확산된 이후, 1519년 로바이나 Lovaina대학과 꼴로니아Colonia대학에서, 1521년에는 파리대학 신학부에서 간헐적으로 금서들이 발표되다가 본격적인 금서목록 작성은 로마교황청산하 종교재판소가 생긴 1542년 이후이다. 알려진 최초의 체계적인 금서목록은 1544년 파리대학 신학부가 만든 것으로 1547, 1551, 1556년에 증보판이 나오고 로바이나 대학은 1546, 1550, 1558년에, 베네치아에서는 1549, 1554년, 포르투갈 종교재판소는 1547, 1551, 1561년에 각각 발표한다. 교황청에서는 1557-1559년에 빠블로 4세에 의해 발간된 후 1564년에 삐오 4세, 1571년에 삐오 5세의 수정 증보판이 나온다. (Martínez de Bujanda, pp. 7-10) 금서목록 발간은 이단이나 사악한 내용의 책이 읽히는 것을 규제한다는 의미와 함께 지속적인 사후 검열의 성격을 가진다. 스페인에서 금서목록의 출판은 1547년(바야돌리드)과 1551년(똘레도)에 로바이나 대학의 1546, 1550년판 Index를 각각 요약한 뒤 라틴어 및 스페인어 텍스트를 몇 개 추가하면서 시작되고 1554년에는 발데스 대주교의 감독하에 살라망까 대학과 알깔라Alcalá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성경에 대한 일반 검열』Censura General de las Biblias이 바야돌리드에서 발간된다. 1551년 Index에는 스페인 문학 작품이 하나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 추가된 라틴어 책의 대부분은 로마 카톨릭이 인정하지 않은 교리를 다루고 있거나 사제들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이다. 짤막하게 언급된 검열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라틴어로 쓰인 것 이외의 모든 성경.
2) 결혼하는 것과 사제가 되는 것을 만류하는 모든 책.
3) 성경 구절을 왜곡해서 쓰고 있는 모든 책.
4) 1515년 이전에 나온 책 중 작가, 제목, 출판인, 출판장소, 출판연도

가 불분명한 모든 책.

5) 히브리어, 아랍어로 쓰인 책과 마법, 주문에 관한 모든 책.

6) 1541년 공표된 제국의 행정운영 제도에 반한 내용이 담긴 모든 책.

위의 기준들은 이후의 금서목록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철학, 신학, 문학을 망라한 모든 분야에서, 번역이 아닌 엄밀한 의미의 스페인 최초의 금서목록은 1559년 바야돌리드에서 발데스가 공표한 금서목록으로 금지된 책의 성격이 같은 해에 나온 교황 빠블로 4세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 1547, 1551년에 나온 발데스의 금서목록을 좀 더 확대하고 체계화한 1559년 Index는 약 700권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볼 수 있는 기준은 1551년의 기준과 차이가 없다. 다만 금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종교재판소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불고지죄를 벅용해 교회에서 추방한다는 항목이 눈에 띈다. 그 뒤 1564년 트리엔트 종교회의가 끝나면서 교황청이 내놓은 금서목록은 스페인에서 재간되지도 않고 이후의 금서목록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교황청보다는 아스뚜리아스 왕가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서가 된다. 그 뒤 브뤼셀에서 1570, 1571년에 각각 금서목록이 나오는데 특히 후자는 아리아스 몬따노Arias Montano가 작성한 것으로 스페인 문학작품이 그 지역에 광범위하게 읽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지역이 신교권으로 통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6세기에 스페인에서 나온 금서 목록중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이며 그 기준이 명료한 것은 가스빠르 데 끼로가Gaspar de Quiroga 추기경이 1583년(1부, 전체금서)과 1584년(2부, 부분금서)에 마드리드에서 발간한 것이다. 여기에는 2200여권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는데 대략 1600권이 라틴어, 200권이 스페인어이고, 나머지는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쓰인 것이다. 끼로가 Index는 멜초르 까노Melchor Cano가 작성한 발데스의 1559년 금서목록을 기초로 트리엔트 Index를 부분 수용하고 몬따노의 것을 추가했다. 서문에는 이 작업에 참여한 대학과 사람이

명시되어 있고 특히 끼로가 Index가 제시한 14가지의 검열기준은 16세기의 문학검열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1551년 Index와 부분적으로 겹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1515년 이전에 교황이나 종교회의에서 금서로 정한 모든 책은 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금한다.
2) 본 목록의 뒤에 열거된 이단의 수괴가 1515년 이후 쓴 책들은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더라도 모두 금서로 한다. 그러나 이들의 책에 삽입되어 있는 카톨릭 신자의 글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한 믿음에 반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출판을 허가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종교재판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비록 수괴가 아니더라도 이단으로 규정된 작가의 책은 종교문제를 다룰 경우 잘못된 점이 없더라도 금서로 한다. 그러나 역사나 기타 다른 분야의 책은 사전심의를 거쳐 출판할 수 있고 이들이 이단이 되기전에 쓴 책에 대해서는 검열관의 서면 허가를 따로 얻어야만 한다.
4) 성스러운 카톨릭 신앙과 로마교회가 정한 전례성경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유대인과 모로인의 책은 금서로 한다. 그러나 검열관의 서면 허가를 얻을 경우 학식이 뛰어난 사람에 한해 읽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탈무드는 그 주석서와 함께 금서로 하나 타르굼Thargum은 허용한다.
5) 이단에 속한 작가가 카톨릭 신자나 사제의 글을 편집했을 때, 원본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판할 수 있다. 즉 편집자는 단순히 모으는 일만 했어야 하며 편집된 글에 카톨릭 신앙에 반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단 작가가 주를 달거나 취합한 어떤 책도 금하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이런류의 책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열관이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바따블로Vatablo 성경과 이시도로 끌라리오Isidoro Clario의 성경은 종

교재판소의 기준에 맞춰 수정된 판본만 출판을 허락한다.

6) 라틴어가 아닌 언어로 쓰인 모든 성경은 금서로 하되 카톨릭 신자가 타인에게 교훈을 목적으로 성경 속의 경구를 쓰거나 미사의 전례송 및 설교중에 쓰는 것은 허락한다.

7) 그러나 라틴어로 쓰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헛된 희망이나 두려움을 주는 교리서, 기도서, 신앙 지침서는 금서로 한다.

8) 검열관의 별도 서면 허가가 없으면 카톨릭 교도와 이단간의 논쟁, 코란에 대한 공박 등을 담은 책은 라틴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면 금서로 한다.

9) 악마를 부르기 위한 모든 책자나 부적은 엄히 금하며 마술, 최면, 예언, 점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도구와 방법을 다루고 있는 글도 마찬가지이다.

10) 불경스런 그림이나 포스터, 책제목, 등장인물의 이름이 들어 있는 책은 금서로 한다. 또한 운문으로나 산문으로 쓰여진 모든 노래가사도 성경과 성직자에게 불경스런 내용을 담고 있거나 구절이 잘못 이해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금한다.

11) 작가, 출판인, 출판년도 및 장소가 없는 책은 그 내용이 의심스럽기에 금서로 한다.

12) 모든 성인과 성직자를 대상으로 신앙에 반하는 내용의 극화, 가면, 포스터, 연극 등은 교회의 권위를 위해 엄금한다.

13)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면,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유통되어 읽히고 있는 신앙이 돈독한 작가의 책은 허용한다. 그러나 앞으로 쓰여질 책에 대해서는 성스러운 신앙과 전례, 생활방식에 반하는 내용이 조금만 있더라도 출판을 금한다. 이 경우 오직 검열관만이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교황이나 교황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오직 종교재판소에서 수정 확인한 것만이 출판될 수 있다.

14) 이 목록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금서로 지정된 책의 다른 번역본도 금서로 한다.

이 열 네가지 기준을 요약하면 '모든 서적은 교회와 사제의 권위를 침해하지 말고 로마교황청이 정한 신앙규범과 전례에 반하지 말아야 한다' 이다. 즉 검열은 아직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첫번째 검열기준의 1515년은 이단 서적의 폐해를 지적하고 공식적인 금서목록 작성을 결의한 레뜨란Letrán 종교회의가 있었던 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무렵까지 1502년 왕령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실 1558년 법령이전에 출판 허가 없이 유통된 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끄리스또발 데 비얄론Cristóbal de Villalón의 *Tragedia de Mirrha*(Medina del Campo, 1536)와 발데스 Index에서 금서가 된 페리씨아노 데 실바의 *Segunda Celestina*(Medina del Campo, 1534)가 그 한 예이다. 끼로가 Index는 그 뒤 종교재판소가 내놓은 금서목록의 기본틀이 된다.

포르투갈에서 나온 금서목록을 제외하면 그뒤에 스페인에서 나온 Index는 1601년에 끼로가 Index의 증보판이 나오지만 검열기준과 금지된 책에는 차이가 없다. 변화의 조짐은 1612년 똘레도 대주교이자 총검열관인 산도발Bernardo de Sandoval y Rojas Index가 마드리드에서 나오면서 시작된다. 끼로가 Index의 기준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보다는 좀더 구체화된 열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 산도발 Index는 문학검열의 방향이 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품의 사회적 측면까지도 아우를 것임을 암시하는 기준 하나를 추가한다. 그 일곱번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로마 교황청에서 이미 금지시켰듯이 앞으로 음탕한 사랑이야기를 다루거나 남녀간의 사랑을 과장, 숭배하는 작품들, 또한 그 내용이 이단이나 잘못된 믿음과 연관되는 작품들은 금서로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준은 이미 1559년 발데스 Index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수많은 희극과 소극(笑劇, farsa), 특히 힐 비센테Gil Vicente의 *Auto...de Amadís de Gaula*와 삐에뜨로 아레띠노Pietro Aretino의 *Ragionamenti*의 한 부분을 번역한 *Coloquio de Damas*, 그

3. 금서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황금세기의 검열방식은 출판허가라는 사전검열과 금서라는 사후 검열로 나뉜다. 또한 사후 검열은 출판된 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사본, 그림, 문양 등 종이 위에 뿌려진 모든 잉크의 모양을 대상으로 한다. 금서로 지정된 책의 대다수는 종교와 관련된 서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작품들은 교리, 철학서들을 제외한 인간의 감성과 행위에 관계된 허구들이다. 금서목록에 문학작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그당시 문학작품이 종교서적에 비해 적게 출판되어서가 아니라 검열관의 주된 관심이 문학에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 주로 라틴어로 된 철학, 교리서에 대해서는 스페인 밖에서 나온 Index들을 참고 할 수 있었지만 스페인 영토 내에서 스페인어로 출간된 문학작품은 검열관들이 일일이 읽어야만 가능했던 이유도 있다.

먼저, 발데스 Index에는 전체 금서만 있고 부분금서목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이 Index의 작성에 참가한 사람들은 빨리 목록을 만들어냐 한다는데 쫓겨 작품을 세세하게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했던 것 같다. 1551년 Index에는 뻬드로 히메네스 데 우레아Pedro Jiménez de Urrea의 *Peregrinación de Jerusalén*만이 금지됐을 뿐이지만 1559년 Index에는 스무권 정도가 금서로 지정되었다. 이 작품들을 검열기준과 대응시켜 어떤 기준에 위배되었는지 정확히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금서목록에 작품별로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네가지 검열기준도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Lazarillo de Tormes*, 1,2부처럼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작품들도 있다. 먼저 이 두 작품에는 작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특히 1부에서 라사로의 부인과 사제와의 불륜관계 등 성직자의 비리에 대한 공격,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 연출한 기적 등 검열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장면이 가득하다. 2부 역시 사제들에 대한 공격이 기본틀을 이루고 바다에 빠진 주인공이 참치로 변했다가 어부의 그물에 잡힌 뒤 다시

사람이 되는 내용도 종교재판소가 주도한 강제 개종을 패러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Lazarillo*의 경우 2부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안 데 루나Juan de Luna가 1620년 파리에서 출판한 것이다. 싸빠따 Index에는 이전 것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2부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Lazarillo 1,2부는 금한다'라고만 적혀있다. 여기에 루나의 책이 포함되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작가미상의 *Lazarillo* 1,2부처럼 여기에도 사제에 대한 비판은 신랄한데 특히 배가 침몰될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청하지만 신부는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고 애쓰는 장면은 당연히 문제가 됐을 것이다. 루나의 다른 책(1619년 파리에서 나온 *Diálogos familiares*, 검열관의 '무식'을 강조하면서 종교재판소를 비판하고 있다.)이 싸빠따 Index에 올라 있는 것을 보면 루나의 2부 역시 금서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한 세 권의 *Lazarillo* 시리즈에 자주 나오는 성경구절에 대한 의미 변용도 금서가 된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종교재판소는 1573년에 출판허가된 수정판은 금서에 넣지 않았다. 이 판본은 후안 로뻬스 데 벨라스꼬Juan López de Velasco가 *Lazarillo Castigado*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으며 여기에는 교회 및 교리와 관계된 부분은 삭제됐지만 주인공을 혹사시킨 탐욕스런 사제나 주인공의 부인과 염문이 있는 사제에 대한 언급은 그대로 남아 있다. 검열관은 이 경우를 카톨릭에 반대하여 이단의 교리를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Alfaro, p. 12) 한편, *Celestina* 시리즈 중에서는 유일하게 2부만이 금서로 지정되었다. 펠리씨아노 데 실바Feliciano de Silva가 *Resurección de Celestina* 부제로 발표한 이 책에는 1부에서 죽은 쎌레스띠나를 부활시켜 예수의 부활을 모독할 뿐 아니라 음탕한 대사와 특히 성경 구절을 희화하여 남녀간의 사랑에 적용시킨 대목도 있다. *Lazarillo* 1부와 함께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발데스 형제Alfonso de Valdés, Juan de Valdés의 책들도 금서가 되었다. 후안이 쓴 세 권의 주석서(*Doctrina Christiana, Comentario a Romanos, Comentario a I Corinthios*)와 알폰소의

*Diálogo de Mercurio y Carón*이 그것으로 카톨릭교회와 성직자의 비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에라스무스의 책은 라틴어로 쓰인 것이 아니면 모두 금서가 됐고 그의 영향을 받은 작가의 책도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후안은 종교재판소에 의해 기소당하기도 한다. 호르헤 데 몬떼마요르 Jorge de Montemayor의 경우는 '종교적 헌신 등 교리에 관계된 작품'만 금서가 된다. 안또니오 마르께스Antonio Márquez는 1558년에 출판된 「Segundo Cancionero」를 지칭한다고 하지만, *Diálogo espiritual*도 이 범주에 속한다. 한편, 몬떼마요르가 쓴 스페인 최초의 목가소설인 *Diana*는 펠리씨아gran sabia Felicia의 성격에 문제가 없지 않음에도 금지된 적이 없다. 기사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유일하게 금서가 된 것은 헤로니모 데 산 뻬드로Jerónimo de San Pedro의 *Caballería Celestial o Pie de la Rosa fragante*이다. 기사소설 중에서도 기사의 무훈을 신앙과 연결시킨 'Caballería a lo divino'에 속하는 이 소설은 원래 익명으로 출판되었기도 했지만 비현실적인 분위기의 기사이야기와 카톨릭교리를 접목시킨다는 자체가 문제를 야기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도 있다. 힐 비센떼의 *Auto... de Amadís de Gaula* 역시 아마디스와 오리아나Oriana공주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이 경우는 주인공들과 사랑이라는 개념자체를 과장해 신성의 경지까지 올린 부분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는 거의가 희극이거나 소극(笑劇)인데 발데스 Index에는 반 이상이 작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 금서가 된 것은,

Bartolomé de Torres Naharro: Jacinta, Aquilana, Propaladia
Iayme de Huete: Thesorina
Francisco de las Natas: Tidea
Juan del Encina: Égloga de Plácido [sic] y Victoriano
Batolomé Palau: Custodia del hombre

1583년 끼로가의 전체 금서목록에는 발데스 Index에 단지 네 권만 추가된다. 안셀모 데 뚜르메다 신부Fray Anselmo de Turmeda의 *Disputa*

del asno, 알폰소 데 발데스의 *Diálogo de las cosas acaecidas en Roma*, 알폰소 데 울요아Alonso de Ulloa의 *Vida del Emperador Carlos V* 그리고 후안 우아르떼 데 산 후안Juan Huarte de San Juan 의 *Examen de ingenios*가 그것인데 뒤의 두 권에는 삭제, 수정되지 않은 것만 금서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1584년에 나온 부분 금서목록에 삭제해야 할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1418년에 쓰여져서 필사본으로 읽히다가 1548년 리용에서 출판된(1509년 까딸란어판과 스페인어판은 존재만 알려졌을 뿐 전해오지 않는다.) *Disputa del asno*는 동물들의 입을 빌려 인간사회의 온갖 사악한 면을 드러낸다. 특히 그 주인공은 사제인 경우가 많다. 고해성사하러 온 어리숙한 부인에게서 십일조를 가로채는 사제이야기, 부인을 겁탈한 사제를 주교가 3일 동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주 가벼운 벌로 사면해주는 이야기 등인데 특히 다음의 이야기는 그 비리가 집단적이다. 한 수도원의 원장과 수사들이 주변마을의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재물을 빼앗기를 일삼다가, 부활절 기간 중 어느 수사가 귀족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 결과 부인과 아이가 죽게 되자 귀족이 수도원장에게 처벌을 요구한다. 그러나 원장이 거절하자 귀족은 당시 교황과 전쟁중이던 플로렌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 수도원장과 수사들을 응징한다. 끼로가 Index에는 금지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상의 이야기들을 볼 때 사제의 비리에 대한 풍자가 그 이유임이 확실하다. 이 '금수회의록'에서 동물들은 천한 일을 하는 당나귀가 신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이미 발데스 Index에서 금서작가가 된 알폰소 데 발데스의 책은 1530년대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까를로스 1세의 로마 침공과 약탈(1527년)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에라스무스에 경도된 그의 해석은 이렇다. 로마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회개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에라스무스라는 선지자를 보내 교회의 비리를 드러내고 훈계하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엔 루터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독일신자들이 돌아설 것이라 경고한다.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하나님이 로마 카톨

릭교회를 징계하겠다는 계시였는데도 교회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회개치 않자, 신의 사자인 까를로스 1세를 통해 결국 징벌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당연히 로마교회와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제로 로마 약탈에는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까를로스 5세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 사이의 패권 다툼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처음에 전체 금서였다가 다음해 부분 금서가 된 울요아의 *Vida del Emperador Carlos V*에서는 발데스 Index에서부터 금서작가가 된 꼰스탄띠노doctor Constantino Ponce de la Fuente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것을 명하고 있다. 꼰스탄띠노는 세비야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중심인물로 종교재판소에 기소되 1560년에 옥사하며 그의 책은 모두 금서이다. 또 다른 부분 금서는 1575년에 출판된 우아르떼의 *Examen de ingenios*인데 뒤에서 보게 될 안드레스 라구나Andrés Laguna의 *Dioscórides*와 더불어 문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르반테스와 17세기 이후 시학 및 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에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르투칼 종교재판소에 의해 금서로 지정된 1581년까지 다섯 번이 더 찍힌다. 끼로가 Index에는 수정, 삭제해서는 재출판할 수 없어보일 만큼 검열에 걸린 부분이 많지만, 작가가 직접 수정한 판본이 그의 사후인 1594년에 나오고 이후 17세기까지 스페인에서만 열 번이 더 출판되며 유럽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된다. 검열에 걸린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의 반향이 컸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인간 개개인의 자질과 이성적 인식에 대해 의학 및 심리학의 관점에서 세분하여 분석한 이 책에 대한 비판은 먼저 프로테스탄트적인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이성과 신앙의 분리에 집중된다. 그에 의하면 성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인식과는 무관한 일이며 따라서 성직자는 지적인 직관을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자연철학의 객관적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 더우기 인간은 그 나름의 독특한 기질ingenium에 의거하여 사물을 인식하며, 살아가면서 배우게 될 지식이나 경험도 이 기질이라는 틀 안에서 수용된다. 즉 신의 섭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인간 자신의 기질과 이성적 판단이라는 세속적 개념이 차지

하면서 원죄, 회개, 천국 등에 대한 카톨릭의 교리 및 세계관뿐만 아니라 사제에 대한 권위에 커다란 철학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Index는 인간의 인식능력과 뇌와의 유기적 관계를 다룬 부분, 영혼의 불멸을 다루고 있는 장(章) 전체, 인간의 본성이 선(善)보다는 악(惡)을 지향한다는 대목, 그리고 성서속에 묘사된 예수에 대한 기질분석 등의 삭제를 명하고 있다. 우아르떼는 그의 생각이 성서의 교리와 상반된다고 책에서 명확히 밝히면서 그의 의도가 카톨릭 신앙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유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데 있다고 하지만 검열관의 칼은 관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이 단지 한번 출판되었다가 곧 잊혀졌다면 사후 검열을 피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어떤 책의 대중적 인기와 반향은 한편으로 그만큼 검열관의 책상위에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우아르떼와 같은 이유로 그레고리오 실베스뜨레Gregorio Silvestre의 시도 검열에 걸린다. 1612년 산도발 Index에 새로 추가된 유일한 문학작품인 그의 시는 단지 한 구절 때문에 처음에 전체금서가 되었다가 곧 부분금서로 풀린다. 그 구절은 '신앙과 이성은 서로 반대된다'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산도발 Index에서 시작된 새로운 검열 방향은 싸빠따 Index에 이전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문학 작품이 올라가게 만든다. 여기에서 새로운 검열 기준에 걸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인 희극과 단편소설의 심사가 한층 세밀화되어 부분금서로 지정된 것이 더 많다. 센티멘탈 소설Novela sentimental은 지금까지 디에고 데 산 뻬드로Diego de San Pedro의 *Cárcel de amor*만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작가미상의 *Questión de amor*도 포르투갈어 번역판이 금서인 것으로 볼 때 원본인 스페인어 판도 법적으로 금서로 간주되므로 금지된 센티멘탈 소설은 두 권이다. 다만 검열관은 *Questión de amor*의 경우 스페인어 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센티멘탈 소설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사랑의 법칙이다. 즉 남자 주인공이 구애했을 때 여자가 받아주면 그는 지고의 행복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절망하

여 죽음에 이르거나 먼 산속으로 들어가 짐승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야만 이 장르의 구성 요건인 사랑과 절망의 시를 읊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카톨릭적인 선악의 기준이나 인간의 덕목, 삶에 대한 교훈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더구나 사랑에 대한 신격화, 지나친 감상(感傷)과 비극적인 어조, 자살이나 염세주의적인 행동은 검열관들이 작품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 *Cárcel de amor*에서, 사랑의 법칙과 함께 비탄에 젖은 주인공이 자살을 택하는 경우나 도입부에 알레고리로 처리된 절망 혹은 죽음의 세계에 대한 묘사가 금서가 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Questión de amor*의 경우는 작가 이름이 없어서 금서가 되었다 치더라도 특히 이 장르의 마지막 작품으로 간주되는 후안 데 세구라Juan de Segura의 *Proceso de cartas de amor*에는 남자 주인공이 연인의 편지를 전하러 온 수녀와 사랑을 나누는 대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센티멘탈 소설 중 왜 하필이면 *Cárcel de amor*만 금지됐는지 의문이 남는다. 산 뻬드로의 소설은 이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1492년 세비야에서 출판된 이래 스페인에서만 약 20개의 판본이 나왔을 뿐 아니라 이미 16세기에 (독일어 판은 1630년) 다른 유럽어로 번역되어 확인된 판본만 25개가 출판되었을 정도로 전 유럽의 베스트 셀러였다. 반면 다른 소설들은 한두 번 나오다가 16세기 중반부터는 그 생명이 끊긴다. 이로 볼 때 1630년대의 검열관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작품은 *Cárcel de amor*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리도 가능하다. 산 뻬드로의 책의 경우 싸빠따 Index이후 한번도 출판되지 않을 만큼 검열의 효과는 강력했다. 기사소설의 경우는 *Palmerín de Oliva*의 포르투갈어판만이 금서됐을 뿐 다른 작품은 검열에 걸린 적이 없고 목가소설의 경우도 포르투갈어로 쓰인 베르나르딤 리베이로Bernardim Ribeiro의 *Menina e Moça*만 금지됐고 스페인어로 쓰인 소설은 한권도 Index에 올라있지 않다. *Palmeín de Oliva*의 경우 작가이름 없이 출판됐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싸빠따 Index에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장르는 단편소설

집과 이보다 짧은 이야기 선집이다. 전체금서가 된 책은 헤로니모 데 꼰뜨레라스Jerónimo de Contreras의 *Selva de aventuras*와 안또니오 데 또르께마다Antonio de Torquemada의 *Jardín de Flores*, 그리고 16세기에 번역된 이태리 단편소설집Novella 중 지랄디 친띠오Giraldi Cintio의 소설을 제외한 반델로Bandello와 스뜨라빠롤라Straparola의 작품들인데 모두 음탕하고 부정한 사랑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부분금서가 된 것으로는 처음에 본 에슬라바의 *Noches de Invierno*외에, 후안 뻬레스 데 몬딸반Juan Pérez de Montalbán의 *Sucesos y prodigios de amor*의 네번째 소설 *La mayor confusión*의 결말 부분이 걸렸는데 이 소설은 이중으로 겹친 근친상간의 이야기(주인공의 부인이 실상은 그의 딸이자 동생)를 다루고 있다. 또 뻬로 메히아Pero Mexía의 *Silva de varia lección*의 1권 9장에 나오는 남장여인 후안의 이야기는 그녀가 나중에 교황이 된데다가 시종과 동침하여 아이까지 낳는 대목이 있으며, 더욱이 후안이 교황이 된 년도(레온 4세가 죽은 852년)까지 나와 독자들이 이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오인할 수도 있기에 금지한다고 Index는 밝히고 있다. 마드리드 국립도서관에 있는 1632년 이전 판본들은 이 부분이 뜯겨져 있거나 줄이 쳐져 있다. 아우구스띤 로하스Augustín Rojas Villandrando의 *Viaje Entretenido*도 부정한 사랑을 다룬 부분이 지적되어 있다.

뻬까레스까 소설로는 비센떼 에스삐넬Vicente Espinel의 *Vida del escudero Marcos de Obregón*이 부분금서가 되는데 3부 15장(Descanso)에 등장하는 사제가 밤에 조용할 때 해야 할 기도를 낮에 길을 가면서 큰소리로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대목이 검열에 걸렸다. 세르반테스의 *Don Quijote*에서는 2부 36장에 나오는 "las obras de caridad que se hacen tibia y flojamente no tienen mérito ni valen nada."라는 구절이 문제가 됐다. 이 문장은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연결되는데 이 문제는 황금세기동안에 검열관이 이단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쓰였다.(참고문헌에 있는 Castro의 글에

서 그 예들을 볼 수 있다.) 또한 1559년 총검열관 발데스와 멜초르 까노가 똘레도 대주교인 바르똘로메 까란싸Bartolomé Carranza를 이단의 혐의로 종교재판에 기소했을 때 확실한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Turberville, pp. 41-43, 88-89) 황금세기의 카톨릭 교리는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나 반면 프로테스탄티즘은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신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의 한 표식일 뿐이라 반박한다. 세르반테스의 문장은 분명히 카톨릭의 교리에 반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말년에 신교에 끌린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까스뜨로가 지적한 것처럼, 에라스무스에 뿌리를 두고 바울서신을 탐독하면서 생겨난 세르반테스의 은밀한 신앙이 형식으로 흘러버린 선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on Quijote*와 함께 스페인 문학의 대표작인 페르난도 데 로하스Fernando de Rojas의 *La Celestina*도 싸빠따 Index에서 처음 부분금서가 되었다. 비평가들은 모두 소또마요르의 1640년 Index에 처음 등장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싸빠따 Index의 검열관은 일곱 대목을 삭제하였다. 다음의 첫 세 인용문은 깔리스또Calisto가 멜리베아Melibea를 그의 '신'Dios이라고 부르는 대목이다.

[Sempronio. Porque lo que dizes contradize la christiana religión.]
Calisto. ¿Qué a mí?
Sempronio. ¿Tú no eres christiano?
Calisto. ¿Yo? Melibeo só, y a Melibea adoro, y en Melibea creo, y a Melibea amo. [Ed. Dorothy S. Severin (Madrid: Cátedra, 1990), p. 93]

Calisto. ¿Mujer? O grossero! Dios, Dios!
Sempronio. ¿Y assí lo crees, o burlas?
Calisto. ¿Que burlo? Por dios la creo, por dios la confesso, y no creo que hay otro soberano en el cielo aunque entre nosotros mora.
Sempronio. (Ha, ha, ha! ¿Oýstes qué blasfemia? ¿Vistes qué ceguedad?)
Calisto. ¿De qué te ríes?

Sempronio. Ríome, que no pensava que havía peor invención de peccado que en
Sodoma.
Calisto. ¿Cómo?
Sempronio. Porque aquéllos procuraron abbominable uso con los ángeles no conoscidos, y tú con el que confiessas ser Dios. (p. 95)

Calisto. [...] por que si passare por casa de mi señora y mi Dios. (p. 136)

또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멜리베아에 대한 사랑을 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숭고하게 묘사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두 대목도 삭제된다.

Calisto. [...] Sin duda, incomparablemente es mayor tal galardón que el servicio, sacrificio, devoción y obras pías que por este lugar alcançar yo tengo a Dios offrecido [ni otro poder mi voluntad humana puede cumplir]. ¿Quién vido en esta vida cuerpo glorificado de ningún hombre como agora el mío? Por cierto, los gloriosos santos que se deleytan en la visión divina no gozan más que yo agora en el acatamiento tuyo. Mas, o triste, que en esto deferimos, que ellos puramente se glorifican sin temor de caer de tal bienaventurança, y yo, misto, me alegro con recelo del esquivo tormento que tu absencia me ha de causar. (p. 86)

Sempronio. [...] Del qual no me maravillo, pues los sabios, los santos, los profetas por él [amor] te [Dios] olvidaron. (p. 94)

나머지 두 부분은 교리와 관계되어 삭제된다.

Calisto. [...] Por cierto si el [fuego] de purgatorio es tal, más querría que mi spíritu fuesse con los de los brutos animales que por medio de aquél yr a la gloria de los santos. (p. 92)

Celestina. [...] Porque aunque fueran las que tú pensavas, en sí no eran malas [palabras], que cada día ay hombres penados por mujeres y mujeres por hombres, y esto obra la natura y la natura ordenóla Dios, y

Dios no hizo cosa mala. Y assí quedava mi demanda, comoquiera que fuesse en sí loable, pues de tal tronco procede, y yo libre de pena. (p. 170)

위의 첫번째 인용문은 깔리스또가 멜리베아와의 사랑의 불꽃을 연옥에 있는 속죄의 불보다 더 뜨겁다고 말하면서 만일 연옥의 불이 사랑의 불꽃처럼 뜨겁다면 자신은 연옥에서의 속죄를 통해 천국으로 가기보다는 (지옥의) 금수들에게로 가겠다는 대목인데 연옥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용문은 쎌레스띠나가 멜리베아를 유혹하고 있는 대목으로 수사학의 기법을 동원해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오히려 신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즉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은 인간의 본성Natura이며 이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부정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므로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맺게 해주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궤변이다. 페르난도 데 로하스는 제목에 대한 부연설명에서 그의 의도가 사랑에 눈먼 연인los locos enamorados가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 훈계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검열관은 묘사된 죄악 중 하나님이나 성자들을 모독하는 부분을 삭제시킨다. 그러나 주인공들의 비도덕적 행위나 사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쎌레스띠나가 한창 그의 매춘사업이 번성하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손님 중에는 노소를 불문하고 기사양반들과 고귀한 지체인 수도원장이나 주교, 하급사제까지 있었으며,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가면 집전하던 사제는 그녀를 본 순간부터 허둥대기 시작한다는 대목도 삭제될 만했다. 경건하고 엄격한 독자의 눈에 온갖 추잡한 죄악과 이단적인 내용이 가득한 책으로 비칠 수 있는 *La Celestina*는 결국 1790년 마지막 금서목록에서 전체금서로 지정된다.

또한 안드레스 라구나Andrés Laguna의 *Dioscórides*에서는 미신과 마법에 근거한 민간 치료요법, 꿈 해몽 및 점술에 대한 부분이 검열에 걸렸다. 한편 희대의 독설가 께베도Quevedo 역시 이 금서목록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께베도에 대한 언급은 좀 특이하다. 앞에서 본 예들처럼

어떤 작품, 어떤 부분은 금하다라는 식이 아니라 1631년까지 그의 이름으로 출판, 유통되고 있는 책들 중 그의 작품이 아니거나 그의 작품이라도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판된 모든 책을 전체금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마 시중에 그의 이름으로 수 없이 나도는 필사본과 책들을 본 께베도가 이것을 검열관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싸빠따 Index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작품이름을 거명하지 않는다. 다만 께베도의 작품인데도 '모르는 게 없는 석사'Licenciado Todo lo sabe의 이름으로 출판된 *El Chitón de las Taravillas*를 작가이름, 출판년도,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금할 뿐이다. 께베도에 대한 언급은 1640년의 소또마요르 Index가 더 자세하다. 여기에는 께베도의 이름으로 출판을 허가하는 작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이미 이전에 나온 *El buscón*, *El Chitón de las Taravillas*, *Sueños*등이 없는 것을 보면 께베도가 직접 자기의 작품인지 아닌지를 검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문학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검열이 두드러진 싸빠따 Index 이후에 나온 소또마요르 Index에는 새롭게 추가된 작품이 별로 없다. 위에서 언급한 께베도에 대한 설명과 가스빠르 루까스 이달고Gaspar Lucas Hidalgo의 *Diálogo de apacible entretenimiento*가 문학과 관련된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Diálogo...*는 금서가 된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데 아마 부활절 기간에 벌이는 축제와 비도덕적인 이야기 때문일 것 같다.

종교재판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서들은 대부분 연구자의 개인적 신념과 그가 속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근거하여 결국 이 제도가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라는 판단을 내린다. 보통 스페인의 종교재판소하면 떠올리는 잔인한 고문으로 일관한 찌푸린 얼굴의 '무식한' 검열관, 그리고 왜곡된 재판구조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영미학자들을 중심으로 유포됐던 검은 전설leyenda negra의 결과이다. 그러나 종교재판에 관한 선악의 판단은 아직 필자의 몫이 아니다. 이 글은 우리의 선조들이 한글을 창제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르고 있을 때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

쪽 끝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강력한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종교와 사상의 단일성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 영향은 어느 정도였는 지만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그 가운데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70, 80년대를 거쳐 오늘까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문학검열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먼저 문학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강력한 이데올로기 -카톨릭-와 그에 반하는 세력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이것의 확산을 위한 도구 -출판기술의 발달-가 갖춰지면서 제기된다. 이 필요성은 1502, 1558, 1627년에 발표된 법령을 통해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지만 1502년 법률은 실효성이 없었고 1627년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법령정비 및 보강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 세 법령사이의 시간적 간격에는 검열을 위한 준비와 함께 스페인 종교재판소를 둘러싼 황제와 교황간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음도 무시할 수 없다. 검열은 왕립심의회와 종교재판소라는 양대기구를 통해 출판 허가와 금서목록이라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 중에서 더 큰 실효를 거둔 것은 금서목록이다. 검열관이나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면 별 문제없이 출판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가 반려됐을 지라도 아무런 처벌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가서 다시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1589년 발렌시아에서 출판된 로■ 데 베가의 *La Dragonea*의 경우). 또한 금서목록의 존재자체가 사전검열이 엄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금서목록의 기준들은 1551년 발데스 Index의 여섯 가지에서 1583년의 끼로가 Index에서는 열 네 가지, 1640년 소또마요르 Index에서는 열 여섯 가지로 늘고 부분금서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까지 추가된다. 그러나 검열의 기본적인 방향은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1612년 산도발 Index에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강조하는 기준이 새롭게 등장하고 이 기준이 1632년 싸■따 Index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검열에 걸린 문학작품들은 대부분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 그 시대 문학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인정된다. 많이 읽히거나 자주 공연되지 않는

작품, 그것은 이미 검열의 대상이 아니다. 검열관은 '무식한' 냉혈한이 아니다. 그는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었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문학, 특히 교훈적인 내용이 아닌 재미만을 위한 작품들에게까지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 즉 일견 엄격해 보이는 검열기준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했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황금세기 작품 중 이 기준들을 엄밀하게 적용했을 때 금서에 걸리지 않을 작품은 거의 없다. 센티멘탈 소설로부터 *Celestina* 1,2,3,4부, 기사소설, 목가소설, 피카레스크소설(*Guzmán de Alfarache*까지도), 17세기 단편소설, 희극, 서정시뿐만 아니라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검열관의 칼을 대면 상처없이 빠져나올 작품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나 검열관의 냉혹한 가면 뒤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몰래 미소지을 수 있는 독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그 한 예를 1600년 교황청 대사로 마드리드에 있던 도메니꼬 진나시Domenico Ginnasi대주교가 교황 끌레멘떼 Clemente 8세의 정무비서로 있던 그의 조카에게 보낸 편지 속에 묘사된 한 연극공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보면, 귀족과 고위 성직자들의 연회에서 희극이 공연되었는데 배우들이 추기경과 주교의 옷이나 미사복을 입고 나와 온갖 우스꽝스런 짓을 했을 뿐 아니라 남자를 벗겨서 십자가에 매단 뒤 욕을 해대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격분한 진나시가 미란다 백작Conde de Miranda과 왕의 고해신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우기 이 희극은 검열을 거쳐 정식으로 허가받은 작품이었으며 그 연회에 검열관들도 참석해 있었다. 그 뒤 바뀐 것은 나중에 진나시가 주재한 연회에서 같은 희극이 공연되었을 때 배우들이 사제를 희화한 부분을 스스로 삭제했다는 것 뿐이다.(Vargas-Hidalgo, pp. 134-135)

금서목록 작성은 검열관이나 심의회 위원들만 관여하지 않는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어느 책이 출판된 뒤 독자들, 주로 사제나 신학자들이 심의회에 이런저런 내용이 문제가 되니 삭제하거나 전체금서로 지정하라는 편지를 보낸다. 심의회는 이 사실을 공고하고 검열관이나 그가 지명한

학자들이 엄밀한 조사에 들어가 문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가의 반론권도 인정된다. 로뻬의 희극 *El divino africano* 와 몬딸반의 *Sucesos y progidios de amor* 등이 이 과정을 거쳤는데 몬딸반의 소설만 금서가 된다. 그러므로 출판허가 때와는 달리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 어물쩡 넘어가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검열관이나 일상적으로 검열에 참가하는 작가가 쓴 책이라 할지라도 이런 검증과정을 통해 금서가 되기도 한다.(Márquez, pp. 121-140) 이렇게 스페인의 검열과정은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엄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대한 태도를 견지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 양면성은 세르반테스의 *Novelas Ejemplares*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의 비유, 즉 인간은 신과 대화하며 명상에 잠길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활시위를 놓고 건전한 놀이honesto entretenimiento를 해야만 한다는 데 잘 나타나 있다. 검열관들은 기사소설, 목가소설, 단편소설 등에 대해 '건전한 놀이'라는 개념을 적용했기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검열제도 자체가 실제로 문학작품의 출판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는가, 어느 작가가 검열에 걸렸는가라는 문제와 관계없이 검열의 존재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내면적 자기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검열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진행된다해도 이같은 검열자체의 원죄는 두고두고 비판의 표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주도하던 문학검열에 대한 또 다른 마녀사냥식의 비판은 제고되어야 한다. 적어도 종교재판소와 왕립심의회가 보여준 객관적이고 관대한 문학 검열제도는 이단 사냥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가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대한 자료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세 권 정도는 어느 책에서나 필독서로 언급된다. Juan Antonio Llorente의 *Historia crítica de la Inquisición*(Madrid: 1822, 10 tomos)는 최초의 연구서로 종교재판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통계 수치는 과장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와는 반대 입장에 선 책이 Marcelino Menéndez Pelayo의 *Historia de los heterodoxos españoles*(Madrid: CSIC, 1963-64, 8 tomos)이다. 또한 Henry Charles Lea의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Spain* (New York: 1907) -최근 번역본은 *Historia de la Inquisición española* (Madrid: Fundación Universitaria Española, 1983)-은 객관적인 자료와 균형잡인 시각을 가지고 종교재판소의 역사를 조망한 가장 기본적인 책이다. 문학검열에 대해서는 아직도 총체적인 연구가 나와있지 않으나 Antonio Sierra Corella의 *La censura de libros y papeles en España*...는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검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복원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Antonio Márquez의 *Literatura e Inquisición en Espaa 1478/1834*는 검열에 관한 훌륭한 연구서이긴 하지만 작가론에 너무 치우쳐 있다. 문학 검열에 대한 자료는 Antonio Márquez의 책 참고문헌에서 거의 언급되어 있기에 여기서는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다만 본문 속에 인용된 연구서만을 밝힌다.

Alfaro, Gustavo, "Los Lazarillos y la Inquisición", *Hispanófila*, 78, 1983, pp. 11-19.

Castro, Américo, "Cervantes y la Inquisición", *Modern Philology*, 27, 1929-30, pp. 427-433; *Hacia Cervantes*, Madrid, 1967, pp. 159-166.

Díez Borque, José María, *El libro de la tradición oral a la cultura*

impresa, Barcelona, Montesinos, 1985.

Kamen, Henry, *Una sociedad conflictiva: España, 1469-1714,* Madrid, Alianza, 1984.

Márquez, Antonio, *Literatura e Inquisición en España. 1478/1834,* Madrid, Taurus, 1980.

Martínez de Bujanda, Jesús, "Índices de libros prohibidos del siglo XVI", *Árbor*, 108, 1981, pp. 7-14.

Sierra Corella, Antonio, *La censura de libros y papeles en España y los Índices y catálogos españoles de los prohibidos y expurgados,* Madrid, Cuerpo Facultativo de Archiveros, Bibliotecarios y Arqueólogos, 1947.

Turberville, Arthur Stanley, *La Inquisición español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1.

언급된 금서목록들은 Biblioteca Nacional de Madrid에 소장된 원본을 텍스트로 삼았으며 작품들에 대한 자료는 José Simón Díaz의 『*Bibliografía...*』를 참고하기 바란다.